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법주사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에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불교의 수행의식인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수행과 회향을 실천하는 “자리이타행”으로 살면서
지은 죄와 빚을 갚는 의식으로 자신의 업을 참회하고 앞으로 악업을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는 의식입니다.
또한 단순한 신앙이 아닌 신행信行으로 스스로 실천하는 불교의 가장 적합한 실천행으로써
불자라면 반드시 동참해야 할 의례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계묘년 윤2월에 맞춰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라는 인연을 통해 법주사 불자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회하며
함께 보시하는 공덕을 통해 스스로 복을 짓고 스스로 복을 받는 불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생전예수재 봉행일정

- 입재 : 2월 20일 (음력 2월 1일) 월요일
- 1재 : 2월 26일 (음력 2월 7일) 일요일
- 2재 : 3월 5일 (음력 2월 14일) 일요일
- 3재 : 3월 12일 (음력 2월 21일) 일요일
- 4재 : 3월 19일 (음력 2월 28일) 일요일
- 5재 : 3월 26일 (음력 윤2월 5일) 일요일
- 6재 : 4월 2일 (음력 윤2월 12일) 일요일
- 회향 : 4월 9일 (음력 윤2월 19일) 일요일

■ **동참금** : 1인 100,000원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3 | 3

부처님 말씀 네가지 종류의 사람 / **이달의 법문** 말에 끄달리지 말라 / **주지스님 법문** 비교하지 않는 삶 / **감로의글** 모든 수행은 기도로 부터 / **걸망메고** 미륵신앙 / **수행여화** 바람이 연주하는 소리를 들어라 / **법주사 소식**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능인전 나한님 개채 불사** / **법주사 불교대학 및 경전반 모집** / **방생순례**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문** / **생전예수재 49일기도 봉행**

네 가지 종류의 사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첫번째 사람은 앞이 어둡고 뒤는 밝으며,
두번째 사람은 앞은 밝고 뒤는 어두우며,
세번째 사람은 앞뒤가 다 어두우며,
네번째 사람은 앞뒤가 다 환희 밝으니라.

첫 번째 사람은 어려서는 고생을 하여도
후년에는 복을 받아 살게 되며,
두 번째 사람은 어려서는 행복하게 살아도
후년에는 고생을 하게 되며,
세 번째 사람은 초년이나 후년이나
변함없이 일평생을 통하여 고생하는 사람이요,
네 번째 사람은 초년이나 후년이나 할 것 없이
언제나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나니라.
그러나 한 가지씩 고통이 없는 이가 없으니, 이것을
일컬어 중생병이라고 하게 되나니라.

〈증일아함경〉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3 3 | 통권 374호



2 부처님 말씀 네가지 종류의 사람
4 이달의 법문 말에 끄달리지 말라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10 주지스님 법문 비교하지 않는 삶 정도 스님
12 감로의글 모든 수행은 기도로부터 장산 스님
14 걸망메고 미륵신앙 진정 스님
16 수행여화 바람이 연주하는 소리를 들어라 현진 스님
18 법주사 소식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19 법주사 행사일정
20 법주사 능인전 나한님 개채改彩 불사
21 법주사 불교대학 및 경전반 모집 / 방생순례
22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3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모연문
24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7(단기4356)년 3월호 통권 374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말에 끄달리지 말라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깨친 듯하다가도 실지 경계에 다다르면 그만 아득하게 된다.
이는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린 것이다.
생사를 막아내려면 한 생각을 탁 깨뜨려야 비로소 생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생각을 깨친 뒤라도 반드시 밝은 스승을 찾아가 눈이 바른가를 점검받아야 한다.
옛 어른은 말씀하기를 '다만 자네의 눈이 바른 것만 귀하게 여길 따름이지
자네의 행실을 보려고 하지 않네.'라고 했다.
서산대사가 〈선가귀감〉에서 이르신 이 말씀은 공부하는 사람이 늘 가슴에 새겨야 할
간절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글이나 몇 줄 읽었다고 불법을 다 아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서 큰 깨우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불교 공부는 말이나 문자를 배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선종에서 불립문자不立文字를 강조하는 것은 말이나 문자에 현혹되어
공부에 소홀한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들을 때는 그럴듯하다가도 듣고 나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누가 와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하며
위로의 말을 많이 해 주었다고 해서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말로는 다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문의 도의국사, 실상산문의 홍척국사,
동리산문의 혜철국사가 찾아가 선법을 배운 서당지장西堂智藏 화상은 학문에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선승이었습니다. 이 스님은 마조도일의 제자로서
선원청규를 제정해 선문을 크게 일으킨 백장회해百丈懷海와 동위입실同位入室한 사람입니다.
마조대사는 두 사람을 평하되 '경은 창고(藏:지장)로 돌아갔고
선은 바다(海:회해)로 돌아갔다.'라고 할 정도로 신뢰가 컸습니다.
스님은 경학에도 남다른 조예가 있었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스님인지라 남 앞에서 유식을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 교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예화는 스님이 유식을 자랑하는
속인들을 어떻게 혼내 주고 가르치는지를 말해 줍니다.
어느 날 글깨나 읽고 선지식을 두루 방문한 수재秀才라는 사람이 찾아와
천당과 지옥이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삼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물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건방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경산법흠徑山法欽 화상에게 물어보았더니 화상은 그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대에게 아내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기다렸다가 스님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경산 화상은 안팎을 잘 다스려 이치와 행이 구족하시니 일체가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대는 삼계의 범부로서 처자를 껴안고 사는 지옥 찌꺼기인데
어찌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가. 만약 네가 경산 화상처럼 산다면 없다고 해도 좋으리라."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서尙書 벼슬을 하는 이호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화상을 기다리는 사이 그 절에 있던 어떤 납자에게 법력을 시험하느라고
마조 대사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물었습니다.
납자는 "어떤 때는 마음이 부처(是心是佛)라 히시고,
어떤 때는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두 형편없다면서 빈정댔습니다.
조금 뒤 화상이 외출에서 돌아오자 이호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호!"
화상이 질문하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네"
하고 대답을 하자 스님은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북과 피리소리가 나는구나."

〈전심법요傳心法要〉라는 유명한 책을 남긴 황벽희운黃檗希運선사가
상공 배휴를 만나 혼내준 얘기도 유명합니다. 화상은 백장 선사의 법을 이었는데
한때는 신분을 숨기고 제방을 편력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화상은 홍주洪州 용흥사龍興寺라는 절에서 마당이나 청소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홍주의 자사인 배휴裵休가 찾아와 어떤 납자와 이런 문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영각影閣안에 있는 그림이 무엇이오?"
"고승의 영정이외다."
"형상인즉 볼 만하나 고승은 어디에 있소?"
납자들이 대답을 못 하고 머뭇거리자 배휴가 물었습니다.
"이 절에는 선승이 없소?"
"근래에 한 스님이 와 있는데 아마도 그가 선승인 것 같소이다."
배휴는 그 선승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납자들이 황벽스님을 모셔오자
배휴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벽스님은 큰 소리로 자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배휴!"
배휴가 엉겁결에 "네"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고?"배휴는 이 말에 바로 귀가 열렸습니다.
배휴는 그 자리에서 제자의 예를 올리고 조석으로 문안하였습니다.
그 후 황벽스님은 배휴의 청을 받아들여 완릉의 개원사, 홍주의 대안사에 머물면서
교화를 폈는데 이때 그 문하에서 저 유명한 임제의현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제방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완릉록〉과 〈전심법요〉는
이 무렵 배휴가 황벽스님을 찾아 뵙고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식함을 자랑하다가 스님에게 혼난 사람으로는 팔대문장가로 소문이 높았던
소동파蘇東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형남에 있을 때 옥천사에 승호承皓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도예道譽가 아주 높은 분이었습니다. 동파는 스님의 법력을 시험해 볼 요량으로
어느 날 옥천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내 놓고 물었습니다.
"공부가 높으신 대인 같은데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의 성은 칭가秤哥라고 합니다."
"칭가라니 무슨 뜻입니까?"
"천하 선지식의 법력을 달아보는 저울이란 말이외다."
소동파의 말이 떨어지자 마자 승호스님이 대갈大喝을 했습니다.
그 통에 소동파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칭선생, 이 고함소리는 몇 근이나 되는지요?"
소동파는 그만 말문이 막혀 스님에게 무릎을 꿇고 법을 물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는 강호를 돌며 큰스님의 무게를 다는 일도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무릇 모든 지식이란 이와 같아서 어떤 경계를 만나면 쓸모없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지식이란 기본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머리를 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지혜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른 깨달음을 통해 얻을 수 있으니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기 바랍니다.

虛空境界豈思量
大道淸幽理更長
但得五湖風月在
春來依舊百花香

허공 경계를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큰 도는 크고 맑아 이치 또한 깊나니
오호의 풍월을 알기만 하면
봄이 올 때 여전히 꽃향기 가득하리라.

언구言句에서 불법을 구할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호에서 풍월을 얻으려면 먼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온몸으로 불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비록 문자나 언구가 부족하더라도 그 안목이 어떤가를 살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지스님 법문

비교하지 않는 삶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몇 해 전 부탄에 대한 관심이 커져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여행을 가고 또 가고 싶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비한 국가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행복지수 1위의 부탄이 10년이 지난 현재는
행복지수가 90위권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다른 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자신들과 다른 나라를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첫 번째 조건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엇을 비교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수행은 기도로부터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불교를 수행하거나 어떤 종교를 공부하든지 먼저는 기도祈禱로부터 시작한다.

기도야말로 수행의 첫걸음이자 마무리이기 때문이다.

기도의 종류는 많다.

부처님 명호를 외우는 ① 염불 기도 ② 108배, 1000배, 3000, 만배등의 절하는 기도 ③ 다라니 주력기도 ④ 경전을 보고 베끼어 쓰는 사경기도 ⑤ 경전 독송 기도(금강경, 천수경, 원각경, 법화경, 반야심경 등) 등등 여러 가지 기도법이 있다. 그리고 기도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는 무시無時로 하는 기도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정시定時기도가 있다.

가령 내가 금강경 독송 기도를 하겠다면 아침 몇 시에 정해 놓고 1독이나 3독을 하면 되는데, 대체로 제목은 '나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3번~7번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좋다. 경의 제목만 반복해도 기도가 된다고 경에서는 역설力說하고 있다.

또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을 반복 송독해도 큰 위신력과 영험이 있다고 전한다.

처음 독송하는 사람에게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몸에 배어들기까지는 생소하고 힘들고 쉽지 않다. 일단 독송하고 있는 경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스님이 독송하면 좋다고 하니 하는 것이지만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목만 아프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일주일 정도 독송하면 슬슬 취미도 붙고 독송의 힘이 붙는다.

더불어 무언가 모르게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고 지혜스런 생각과 행동이 따른다.

주석서註釋書를 보아가며 경전의 뜻을 새기면서 하다가 보면 어느새 독경의 취미와 힘이 증장하고, 밝은 변화가 서서히 따른다.

독경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선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소리 내니, 파동이 아름다워져서 심신心身이 편안하고 안정감도 있다. 한두 달 독송하다 보면 내가 경전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경전을 수호하는 부처님과 호법신장들의 가피가 느껴지면서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과 경애敬愛심이 깊어진다. 주석서를 통한 경전의 뜻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이지만 깊고도 깊은 진리가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겹겹이 펼쳐지면서 예전에 몰랐던 깊은 뜻이 전해옴을 감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전 독송 기도는 목소리를 내어 독송하므로 머리로만이 아닌 몸 전체로 체화體化되면서 얻는 실질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선가禪家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초구에 각득覺得하면 불조佛祖를 초월하고, 이구二句에 각득 하면 인천人天의 스승이 될 것이고, 삼구三句에 각득 하면 남은 물론 자신도 구제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듯이 초구初句란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한 도리이니 바로 체화體化한 깨달음을 말한다.

초구를 설명한 말로는 유명한 선가의 구절이 있다.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한다. 문자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게 하고 부처를 이루게 한다.'라는 뜻이 초구의 설명이니 문자는 문자이나 문자를 뛰어넘는 글이다.

명상이나 간화선을 통하여 선정의 맛을 어느 정도 느끼신 분에게도 기도는 수행의 원동력이기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청정한 각지覺知인 본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눈앞에 현현顯現하는 일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완벽하여 더 이상 구할 것도 노력할 수 없다는 성문승의 마음을 낸다면 거기서 멈추게 된다. 모든 수행자는 보살의 원과 행을 발하여 중생이 따로 없음을 알면서도 자리이타自利利他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보살의 원願을 발하고 보살의 행行을 실천해야 한다.

신도님 한 분 한 분이, 또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과 병에서 치유되고, 어딜가나보호받고, 소원이 이루어 지시길 간절히 기도해 보자.

이理와 사事가 같으면서도 다름을 아는 신묘한 경지에서 불보살님의 무량한 대지혜와 대자비와 끝없는 방편의 마음과 계합契合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불자야말로 수행자의 모범이며 꽃중에 꽃이다.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실천력 있는 기도하는 불자가 되어, 나도 남도 행복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한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미륵신앙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미륵'이라는 명칭은 범어로 마이트레야(Maitreya)인데 한자로 미륵이라고 음역하였고 그 뜻은 자씨, 곧 '자비로운 분'이라는 뜻이다.

현재 석가모니불의 후보불인 보처보살로서 욕계 제4천인 도솔타천에 있으며, 훗날 우리 인간계에 출현하여 성불하면 미륵불, 미륵존불 또는 미륵여래, 응공 등의 십호를 구족하여 세 번의 설법으로 모든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보처보살'이라 함은 곧 부처님의 후보라는 뜻이니, 대승불교 사상에서 보면 무량겁 전에 발심 수행하여 보살의 십지공덕을 원만히 성취한, 최후로 성불할 지위인 '등각보살'을 가리켜 보처보살이라고 한다.

미륵신앙이 발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도에서부터이다. 석가모니께서 입멸 후 일반의 불교에 대한 신앙은 석가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부처를 신앙한다던가 할 그런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축법호가 최초의 미륵경전인 미륵성불경을 한역한 때가 기원후 300년대에 처음인 고로 미륵신앙은 적어도 기원전 2세기경에서 기원후 2세기경 사이에 대승불교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보여진다.

미륵불 신앙은 처음 인도에서 성립하여 서역 지방을 거쳐 중국에 전개되었다가 다시 불법의 동점과 함께 이 땅에 건너 들어와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전해오고 있으며 특히 미륵신앙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독자적으로 중국과는 다른 양상을 이루며 발전 전개됐던 것이다.

미륵은 보통 불가의 조석의 예불의 범에서는 자씨미륵존불이라고 경칭 된다. 이 존칭에는 반드시 당래하생이라는 관형사가 선행하고 있다. 자씨란 자심을 뜻하고 있다. 미륵에 대한 기록은 초기경전 곳곳에 보이고 있다. "숫타니빠타" "현우경" "대본경"등에 밝혀져 있다.

미륵신앙은 불멸 후 사백년경부터 유행되었다. 그 신앙은 대체로 도솔왕생신앙과 미래신앙인데 여기에서 다시 점검하면 자비, 복덕, 신앙, 평화사상, 지상천국, 십선도사상의 육종으로 분류된다.

미륵보살은 석가멸후 56억 7천만 년 세에 도솔천의 수명이 다할 때,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염부제인 지상에 내려와 탁생하여 이윽고 부처가 되어 용화수하에서 세 번에 걸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사람들은 미륵을 믿고 수행하는 선근을 쌓아서 용화삼회의 설법에 참여하여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미륵신앙이다.

미륵신앙 혹은 미륵사상이라는 것은 그 핵심을 파악하려면 반드시 인간이 시간을 인식하는 구조의 보편성 속에서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륵은 "미래불"이며 여기 "미래"라 함은 "아직 오지 않은"이라는 시간성(temporality)의 인식이 개재됨으로써만 가능한 개념이다. 미래에 중생들의 삶 속으로 다가올 것을 말하였다.

이런 미륵신앙은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으로 나누어진다. 하생경에는 미륵이 하생하는 시기를 말법시대와 연결하여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미륵신앙은 말법사상의 위기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의 교법이 이 땅에 전래되면서 그 핵심이라 할 자비의 가르침이 함께 전해졌다고 생각된다. 이런 부처님의 자비慈悲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미륵교설도 불교전래와 동시에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주사의 미륵대불을 최초로 조성한 진표율사는 우리 국토가 특히 미륵님과 인연이 있다는 백제 · 신라의 신앙전통을 받아서 그 결론을 지은 분이다. 진표율사는 미륵님의 교법을 받아서 10악을 참회하고 10선을 실천시키는 교화 운동으로서 이 국토에 미륵불이 출현하실 용화세계를 구현시킬 교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선 · 악 업보를 점쳐서 알고 10악을 참회하고 10선을 닦아 행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이 가장 잘사는 길이며 지상불국인 용화세계를 실현하는 법이며 미륵불을 빠른 장래에 우리 국토에 강림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표율사의 뜻이요, 근본정신이다. 법주사의 미륵대불은 불교와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염원이고 세계의 중심이 이곳 법주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 나아가길 발원하는 상징이다.



바람이 연주하는 소리를 들어라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일을 끝낸 지금까지 내 손등에서 꽃 향기가 난다. 가을에 피었다가 말라버린 구절초 꽃대를 온종일 잘라주었는데 그 향이 여태 남아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작업복에서 퇴비 거름 냄새가 났었다. 어떤 일이냐에 따라 몸에 스미는 향기가 다르다. 며칠 간의 봄맞이 준비로 몸에서 향기가 나기도 하고, 냄새가 묻기도 하고 그렇다.

그저께는 퇴비 시비 작업을 했었다. 가축분 퇴비를 충분히 뿌려 주는 일도 밭 갈기 전에 미리 해야 할 과정이다. 봄날에 모종을 심는 것은, 그다음 일이다. 작년에는 퇴비가 부족했던지 작물이 튼실하지 않았다. 빈 밭에 퇴비를 무더기로 부어 놓고 나면 본격적으로 영농일기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퇴비를 넉넉하게 들여와서 나무 아래에도 거름을 듬뿍 넣었다. 벚나무,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목수국 등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녀석들한테 '퇴비 맛'을 보여 주며 무럭무럭 성장할 것을 부탁했다. 묘목이 어른 나무가 되기까지는 세월도 필요하지만, 주인의 손길과 관심이 있으면 더 늠름하고 단단한 나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일도 혼자 하기엔 힘에 부친다. 더 나이 들면 어찌하나 덜컥 겁이 난다. 마음은 뻔한데 몸이 말을 안 듣게 되면 멍하니 손 놓고 있어야 할 때가 올 것인데 벌써 체력이 약해지니 걱정은 된다. 정원 일은 어차피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만 가능한 영역이라서 그날까지 소일 삼아 집중하며 즐기면 되는 일이지 싶다.

교토의 용안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산수山水정원은 언제나 완벽했다. 그곳 스님들은 이른 새벽 몸을 씻고 정원으로 나가서, 전날 떨어진 나뭇잎과 잡초, 이끼를 정갈히 정리한 뒤 갈고리를 들어 바닥의 자갈을 긁어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기 전에 일찍 그런 일을 마치는 것이다. 그 수고 덕분에 방문객들은 한결같은 정원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리는 것이다.

이처럼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방문하는 분들이 고요와 평화를 선물 받고 가면 그것으로 족하다. 거창하게 수행이라는 낱말을 붙일 일은 아니더라도 매일 예불 올리듯 정원에서 명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우리 사찰 정원이 또 다른 법당이길 원한다. 그래서 꽃과 나무는 자연이 설하는 무진 법문이며, 삶에 대한 응원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곳 정원을 조성할 때도 어떤 형태로 설계할지 훈련하며 고민했다. 그 주제를 '위로와 명상'으로 정하고 내 나름의 소견을 발휘하며 가꾸고 있다.

어디든 앉으면 지친 어깨를 다독이는 바람이 있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는 꽃이 있다면 그 어떤 한 마디보다 큰 위로가 되리라 믿는다. 때론 사람에게 듣는 격려보다는 자연이 전해주는 위로에 가슴 뭉클해지기도 한다. 굳이 사람과 대면하지 않아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시대라는 뜻이다. 이러하므로 사찰 정원은 자신의 고민을 풀어 놓아도 무방한 은밀한 성소聖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꽃 앞에서 자신만의 고해성사를 거행한다면 답답했던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겠는가.



14c의 수도자 성 베르나도는 "우리는 책보다도 숲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바위와 나무들은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라는 명언을 전했다. 어쩌면 미래가 요구하는 종교는 거창한 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나무와 꽃일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은행나무 아래에 작은 건축물을 설치하고 종을 달았다. 그곳을 '명상의 집'으로 명명했다. 바람이 살살 불 때마다 종소리가 은은히 들리고 봄 햇살이 맑게 들어오는 곳이다. 안내문엔 '바람이 연주하는 종소리를 들으며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복잡한 문제에서 단순해지길'이라 적었다. 누구나 잠시 앉아서 숲이 전하는 위로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축복하라는 나의 배려다. 내면의 고요함과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종교라기보다는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하는 종교에 가깝다. 해결은 언제든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완벽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소에 목적을 두면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큰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하므로 문제와 갈등은 해결보다는 해소의 시각으로 조율해야 옳은 태도라는 것이다.

고통 또한 이해해야 할 대상일 뿐 극복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극복은 해결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해는 해소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해할 때 사랑과 용서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고민과 고통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곳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 섣불리 해결하려 말고 차근차근 해소하는 지혜를 배워가길 바란다.

정신을 조용히 하라,
그러면 영혼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아주 오래전, 부처님이 당부하신 명상 설법이다.



2월 3일 승가대학 졸업식



2월 4일 삼재풀이



2월 4일 입춘기도



2월 5일 동안거 해제



2월 5일 사천왕재



2월 20일 초하루, 생전예수재입재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포근하고 따듯한 법주사의 봄

봄의 향기를 머금은 법주사

법주사의 따듯한 봄은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와 많이 닮았습니다.
따스한 햇볕과 법주사의 아름다운 전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법구경

2023. 3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2.10 삼일절	2 11	3 12	4 13 광명진언기도
5 14 생전예수재 2재	6 경칩 15 보름 열반재일 다도반법회	7 16 합창단법회	8 17	9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10 19	11 20
12 21 생전예수재 3재	13 22	14 23	15 24 관음재일	16 25	17 26	18 27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19 28 생전예수재 4재	20 29 다도반법회	21 춘분 30	22 (윤) 2.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법회	23 2	24 3 신중기도회향	25 4
26 5 생전예수재 5재	27 6	28 7	29 8 약사재일	30 9	31 10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능인전 나한님 개채改彩 불사







속리산 법주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 앞에 능인전이 있습니다.
이곳 능인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에 두분의 보살님 그리고
열여섯분의 나한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의 보살님과 나한님은 부처님과 같이
금으로 옷을 입고 계시지 않고
색이 있는 옷을 입고 계셔서
이러한 옷을 새로 입혀드리는 불사를
개채改彩라고 말합니다.
금번 법주사 능인전 개채불사는
보살님 2분과 나한님 16분에게
새롭게 옷을 해드리는 것으로
이러한 중생들의 불사의 마음이
나한님들께 닿아 불사의 인연 중생들에게
그 공덕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여 개채불사와
기도의 원력으로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 **문　　의** : 원주실 : 043-543-4755
- **동참계좌** : 농협 3511139-7120-53 법주사
- **동 참 금** : 1인당 **200**만원

법주사 불교대학 및 경전반 모집

■ **구비서류** : 신청서(법주사 종무소에서 작성)

■ **수업내용** : 불교대학 - 불교기초교리, 불자예절, 불교문화
경전반 - 불교경전

■ **문의전화** : 043-543-3615

■ **입학일시** : 2023년 3월 20일
불교대학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 오후 7시 ~ 9시
경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9시

■ **장소** : 템플스테이 선불장

■ **수강료** : 1학기당 **15**만원 (농협 법주사 : 351-0897-5378-23)

방생순례





■ **일　시** : 불기2567(2023)년 **4**월 **13**일(윤달 음2월 23일) 목요일
■ **장　소** : 여주신륵사
■ **공　양** : 여주신륵사준비
■ **동참금** : **5**만원(교통비, 방생동참금)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023년 **3**월 **4**일(음 2월 13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2023년 **3**월 **18**일(음 2월 27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 모연문

계묘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속리산 법주사 청정도량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려고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진리의 법광이 비추어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대웅보전** : 30만원
■ **능 인 전** : 20만원
■ **미 륵 전** : 10만원
■ **삼 성 각** : 10만원
■ **약 사 전** : 10만원
■ **명 부 전** : 10만원
■ **영 가 등** :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